

전시

민속박물관, 잔나비띠 기획전

새해 갑신년(甲申年) 원숭이해를 맞아 2월 9일까지 '잔나비띠 기획전'이 열린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홍남)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문화 속에 녹아 있는 원숭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인 원숭이탈을 봉산탈춤에서 신발장수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원숭이를 묘사한 것이다. 봉산탈시대 '청동제 십이지주'를 비롯해 40여점에 이르는 십이지와 원숭이 관련 유물이 전시된다. (02)734-1346



◇원숭이탈.

덕수궁 전시관, 십장생 특별전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를 뜻하는 십장생(十長生)은 불교장생에 대한 인간의 꿈과 염원을 나타낸 대표적 길상(吉祥). 십장생을 소재로 2월 22일까지 문화재청 산하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관장 강승형)에서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총 120건의 유물을 선보인다. 특히 궁중에서 쓰였던 '10폭 십장생 대작 병풍'과 백자 등이 나와 화려한 조선 궁중문화를 엿보게 한다. (02)771-9954



◇10폭 십장생 대작병풍.

게시판

함께 일해요

▲보리방송모니터 통신원 모집
불교 외국과 편파 방송 시정에 앞장서고 있는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가 방송모니터 통신원을 모집한다. 방송에 대한 불만이나 시청소감을 매일 보내주는 일을 하게 될 통신원은 방송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통신원에게는 격월간 소식지 <좋은 방송을 위하여>와 관련 자료를 우송해 준다. 홈페이지(http://cafe.daum.net/boribang)나 전화(02-754-5811)를 통해 접수 가능.

▲제천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사모집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내의 종합적인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를 찾고 있다. 자격은 관련학과 자격증 소지자면 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한다. www.jccr.co.kr. (043)652-0900

▲민족사 편집부 직원 구함
도서출판 민족사가 편집부 직원을 구한다. IBM편집과 포토샵으로 일러스트를 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minjoksa@chollian.net. (02)732-2404

▲맑고 향기롭게. 종교생 자원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고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상사 설립전에서의 조별 교육과 복지관 현장에 나가 봉사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02)741-4696

▲삼전복지관, 청소년 봉사학교 운영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제2회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한다. 모집대상은 송파구 인근 중·고등학생들로, 1월 12-17일, 26-31일 등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마감은 1월 31일. (02)421-6077

우리 결혼해요

밀교신문 손범숙 기자가 1월 17일 오후 1시30분 부산 일리안 초 생명빌딩(옛 제일생명) 지하 1층 제일웨딩홀에서 강호성 군과 백건 가약의 화혼을 밝힌다. (051)631-1004

사무실 옮겨요

▲평불협 성북동으로 이전
-10여 년 동안 대북지원 등 일선에서 통일운동을 해온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는 지난 12월 26일 사무국을 성북동 새사옥으로 이전했다. 통일법당은 2월 12일 개원할 예정이다. (02)741-9348

함께 떠나요

▲타사랑, 태백산 눈꽃축제 답사여행모임 '타사랑'은 1월 11일 태백산 눈꽃 축제 현장으로 떠난다. 새하얀 눈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즐거움은 모두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또 '한국의 지방마을'로 불리는 설원의 고장 태백산에서 눈썰매 만들기, 눈썰매타기 등 다양한 겨울 체험을 할 수 있다. 6만7천원. (02)725-1284



◇태백산 눈꽃전경.

▲광주불교선학회, 시산제 산행법회
광주불교선학회는 이달 11일 오전 7시에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 선학회와 공동으로 시산제 산행법회를 봉행한다. 장소는 광주 무각사. 회비 1만5천원. (063)384-1008

재즈와 함께 포근한 겨울을

앨범리뷰

국내 뮤지션 재즈음반 풍년 언더 출신 웅산·나윤선 '눈길' 컴필레이션 앨범도 나와



올 겨울 유달리 한국 재즈 뮤지션들의 음반이 풍년이다. 국내 보다 일본, 유럽 등 외국무대에서 활동해온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나윤선 씨의 앨범과 재즈 기타리스트 CJ 김의 앨범, 그리고 한국 대표 재즈뮤지션들의 컴필레이션 앨범인 'Jazz Jazz' 등 다양한 색깔의 재즈 앨범들이 팬들을 찾아간다.

재즈 신보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재즈 클럽에서 주로 활동해온 웅산(본명 김은영) 씨의 첫 앨범 'Love Letters'. 재즈, 블루스 뿐 아니라 펑키, 소울, 라틴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웅산 씨 특유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새로운 시도의 스탠다드 앨범이다.

대학시절 해비메탈 동아리의 보컬, 불교에 심취해 출가를 결심하는 등 평범하지 않은 인생경험에서 우러난 웅산 씨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발산한다. 재즈 피아니스트 베니 그린 등 미국의 실력 있는 세션들의 참여도 눈에 띄는 이번 앨범에는 'My funny Valentine', 'I want to be happy', 'Misty Blue' 등 재즈 팬들의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포함해 모두 11곡이 수록돼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판매된다.

파리 재즈 스쿨(CIM, Centre d'Information de la Musique)을 졸업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의 3집 앨범 'Down by Love' 도 이 겨울을 녹여줄 재즈 선율이다. 김민기 씨의 '아름다운 사람' 등 한국,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중가요를 재즈풍으로 편곡해 재즈를 대중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재미 기타리스트 CJ 김(본명 김찬준)의 데뷔 앨범 'Endless Love'와 신관용, 이주환, 정원영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 만든 재즈 명곡 모음집 'Jazz Jazz(Choice Jazz Selections by Korean Jazz Masters)'도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적 재즈에 대한 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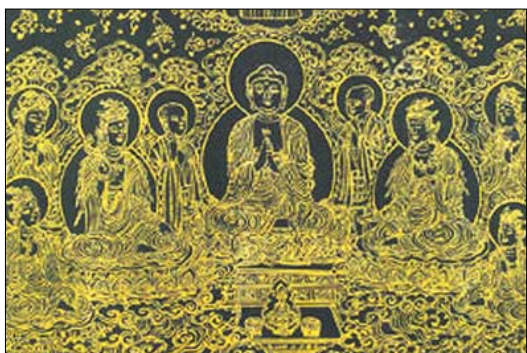
◇올 겨울 한국 뮤지션들의 앨범이 풍성하다. 왼쪽 위부터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편집앨범 '재즈 재즈', 나윤선 3집 '다운 바이 러브', 웅산 데뷔앨범 '러브레터스'.



호림박물관 문화재 특별전

고려·조선 목판 인쇄본 볼 수 있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호림박물관이 2002년에 구입한 문화재를 공개하는 특별전이 2월29일까지 열린다.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골라 토기와 청자, 분청사기, 흑유 도자기, 전적과 회화 등 100여 점을 선보인다. 토기는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 것이 대부분이다. 꽃 무늬를 박은 통일신라의 토기인화문합(土器印花文盒), 청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당당한 멋을 지닌 고려의 토기과형매병(土器瓜形梅瓶) 등이 나온다.



◇고려 사경본.

청자는 고려청자가 절정을 이루는 12세기 것을 주로 내놓는데, 연꽃과 버드나무, 들새 등 물가 풍경이 담긴 청자 퇴화연류수금문칠각향로(靑瓷堆花蓮柳水禽文七角香爐) 등 고려와 조선의 목판 인쇄본 등을 볼 수 있다. (02)858-2500 김주일 기자

김교각 스님 등신불 국내서 본다

3월 서울·부산·대구에서 전시 추진

신라의 왕자출신으로 당나라에 건너가 당대 제일의 고승이 된 김교각(金喬覺, 696~794) 스님의 등신불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지장왕보살 진경 행사위원회(집행위원장 김병림)는 중국 안후이(安徽)성 구화산지장보전에 모셔져 있는 교각 스님의 등신불과 구화산 불교유물들을 3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3개 도시에서 전시키로 중국 구화산 풍경관리위원회와 약정서를 맺었다고 지난 12월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국인들로부터 지장왕보살이라 추앙받고 있는 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1300여년만에 한국에서 진경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한중 불교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화산측은 세달 99세에 열반에 든 교각 스님의 법구가 3년이 지나도록 썩지않고 생시 모습 그대로 보존됨에 따라 대비하지 않고 탑속에 봉안, 육신보전이란 전각을 지어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 또 현재 99개의 사찰이 있는 구화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지장 보살대응상(높이 99m)이 건립중이다. (02)761-6241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김교각 스님의 불상.

극장가



▶라스트 사무라이(The Last Samurai)/액션, 드라마/144분
개봉예정일: 1월 9일
감독: 에드워드 즈윅
주연: 톰 크루즈
시놉시스: 1870년 알록 증독자인 전직 남북전쟁 참전군인 우드로우 알그렌 대위(톰 크루즈 분)는 메이지 천황의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일본에 온다. 천황은 알그렌 대위를 통해 신식군대를 발전시키고 남아있는 사무라이를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 전투 도중 사무라이들에게 생포된 대위는 사무라이의 정신과 명예를 배우게 되면서 갈등이 빠진다.



▶아웃 포 킬(Out For Kill)/액션/96분
개봉예정일: 1월 9일
감독: 마이클 오보리우츠
주연: 스티븐 시걸
시놉시스: 한 때 악명 높았던 골동품 절도범 로버트 번즈(스티븐 시걸)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고교학부생으로 새 삶을 시작한다. 고교학부생 명성을 쌓아가며 행복하게 생활하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중국 분도 발골 현상 골동품 속에서 마약 덩치를 발견한다. 이로 인해 로버트는 중국 정부와 국제마약단파반에게 쫓기게 된다.



▶런어웨이(Runaway Jury)/스릴러/127분
개봉예정일: 1월 16일
감독: 케리 플레머
주연: 존 쿠삭, 진 핵크만, 더스틴 호프만, 레이첼 웨이즈, 브루스 데이비슨
시놉시스: 총기난사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무기회사를 상대로 승산 없는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사 웬델 로(더스틴 호프만)는 무기회사를 변호하는 랜킨 피츠(진 핵크만)를 상대로 재판을 벌이게 된다.



▶방우/로맨스/110분
개봉예정일: 1월 16일
감독: 김은숙
주연: 이성태, 송승헌, 김하늘
시놉시스: '산'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역경과 사랑 이야기. 알래스카, 아시아크 등반에 나섰던 중환(이성태 분)과 우성(송승헌 분)은 조난당한다. 게다가 중환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해외등반을 처음 해본 우성은 두려움에 빠진다. 추운 얼음동굴 속에서 잡들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기력을 더듬는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Bit 불교TV ch 32
06:45 고승열전	7월 15:25 성운대사 불경강좌
09:05 차 한잔의 선율	8월 12:00 향토음식기행
11:10 행복스튜디오	9월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15:05 음악의 마을	10월 09:10 조선 불교 탐방사
17:10 무명을 밝히고	11월 15:00 열린 마당
21:30 BBS 초대서	12월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여미론
24:00 삶여 생각하며	13월 12:50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1월 8일 09:05~10:00) - 진경스님의 진행으로 맑은 산사의 향취를 클래식 소품에 실어 전하는 차 한잔의 선율. 매주 목요일 시간에는 한양대 송진명 교수가 안내하는 클래식 음악의 발자취, '클래식 갤러리'가 방송된다.
- 불교텔레비전: 하재봉의 영화산책(1월9일 08:30~09:10) - 새해 특집으로 2003년 한 해 동안 스크린을 장식한 불교영화 베스트를 엄선한다. 지난 '한국영화 베스트 5' 시간에 이어 '매트릭스', '무간도2', '환생', '미스터리버', '돌스' 등 5편의 외국영화를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백련향염

백련의 최대 서식지인 전남 무안군 10만여 평의 '회산방죽'에서 자생하는 백련잎으로 만들었다. 백련잎의 부드러운 연향을 그대로 살려 개발한 향으로, 향을 사르면 하얗게 된 백련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 무안군과 우향 R&D가 공동으로 만든 제품이다. 1만 5천원. (02)732-1520